



대행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못믿고 현상에 꼬달리면 늘 제자리 걸음

갑자기 멍한 느낌 들어요

문 애기를 하는 도중이나 어떤 생각을 할 때 갑자기 멍하면서 다른 곳에 오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무가공 상태라고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현상이며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답 그게 어떤 현상인가가 뭐이 궁금합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뭐가 궁금한지, 제 뿌리에서 제 싹이 나서 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 그런데 왜 그 뿌리를 못 믿는 걸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뿌리에서 가지 일사귀 다 나오고, 흔들리는 것도 다 거기서 나왔고, 바람 부는 것도, 비를 맞는 것도 눈을 맞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다면 자꾸 뒤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못 믿고 궁금해하고 그러면은 자꾸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죠. 꼭 믿고 놓으세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꼬달리라고 말고, 또 그것이 멍한 것이지 않건 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계들을 바로 그 자리에 놓는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생사의 문제도 거기다 그냥 놓으세요. 언제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말고요. 죽고 사는 것도 또 남을 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부터 건져야 남을 건지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건질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동땅 믿고 놓으세요. 그냥.

'마음의 중심' 점검받고 싶어

문 공부를 하다 보니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 점검받고 싶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이름인데, 굳이 참나, 거짓 나 가릴 것 없이 일단 나부터 바르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불평공부를 한다 어쩐다 생각도 말고 내 '삶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부지런히 자신의 해야할 바를 찾아 실천하고 노력하는 강한 의지와 삶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참된 공부 아닐까요?

답 전부 공생으로서 공양을 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자 천 가지 만 가지 마음으로 나와 돌아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달런트들이 주인공이 되어 연기를 하지만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어요. 영화에서도, 그러듯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생멸에 대해서도 죽고 사는 게 없다는 것입니까?

맺들의 심봉

움직이지 않고

맺돌 돌아가게 하듯

주인공은

마음을 돌립니다



그림 · 최주현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꼭 믿고 놓으세요 살아 있으면서 죽어야 화신 나탈수 있어

애깁니다. 영원한 겁니다. 주인공을 찾는 것은 바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수 억겁 전생부터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적인 주인 자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그냥 그대로죠.

맺돌에도 심봉이 있습니다. 아래 위 심봉을 끼워야 물질이 들어가서 갈려지죠? 물질과 맺돌과 물과 모든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세해 돼가지고 돌아가서 물건이 갈려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심봉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심봉은 움직여지지 않고 맺돌만 돌아가죠. 그러는 것도 물질이 다 갈려나온단 말입니다. 심봉은 힘만 가지고 맺돌과 같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주인공은 힘만 가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서 돌아가는 게 맺돌 돌아가듯 하는 거죠. 우리가 몸뚱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음을 내서 이

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게 꼭 맺돌에 물건 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건을 넣어서 갈려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또 넣고 하면서 살림살이를 하고 가죠. 그래서 영원한 자기의 참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진실히 발견하라.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없는 게 아니니 찾는 게 아니고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문 1. 죽은 후에 영혼은 의식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아뢰야식만 남으므로 잠든 형태와 같다고 합니다. 또 의식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후 영혼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합니다. 육체와 관련된 5식이 사라지므로 영혼은 보고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영계에 있을 때 생각하고 보고 들

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2. 위 질문과 관련하여, 죽은 후의 영혼은 성불할 수 있습니까? 티베트 사자의 서를 읽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죽은 후의 상태는 지금 상태의 연속이므로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때에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49일만에 환생이 이루어진다고 하므로, 영계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계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는 도를 닦지 못했습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도를 닦고 성불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답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차원의 그 뜻을 가지고 죽어왔던 뭐이 달라졌습니까? 그 차원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아주 아무렇게 알고 죽어야 그

것도 값비싸게 옷을 벗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옷 벗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옷 벗을 수 있어도 그게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마음에서 옷을 벗고, 옷을 벗는대로 죽 말하자면 자기가 분명하게 이 도리를 알고 옷을 벗어야 하겠죠. 옷을 벗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게 열반이에요. 이로부터, 옷을 벗기 전에 알아야 옷을 벗고 나서 알았다는 거는 안 게 아니죠.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죽어야 진짜 죽는 거지 육신 옷을 벗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돌아 아니게끔 공부하는 것이 천백억화신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게 숫자가 없는 숫자죠. 천백억이 아니라 숫자가 없는 걸 천백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요걸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요게 돼 주고 저걸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저게 돼 주고 아파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돼 주고 가난해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관세음이 돼 주고, 이렇게 나투는 자체가 바로 죽어야 그렇게 나올

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해도 그렇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이름 가지고 있을 때 이 공부해 해야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보다 못한 삶 사는 까닭

문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도 가끔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동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견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스님이 신도 몇 명과 정신지체자 수용소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스님에게만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방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정신지체자들에게도 급이 있어서 가장 낮은 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었는데 마치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자기 몸도 스스로 잘 가누지 못한 채 핏글고 있더라고요. 청소는 수용소안에 호스를 대서 물을 뿌려대는 식으로 하루 2차례 해주고 있었으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르는 애완동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호강하지는 않지만 가족 모두가 귀여워 해주며 때로 산책도 시켜주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이 두 경우를 보았을 때 과연 전자가 사람이라서 후자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 짐승들의 생활이나 사람들의 생활이나 다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고 생활 자체의 문제가 달라서 그렇지 사는 거는 아마 때 일반인인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따라서 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연어도 있듯이 말입니다. 개미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알을 낳아서 죄 벽에 매달아 놓는 개미도 있습니다. 마구 돌아다니다가 그 알이 채일까봐 잘 두려고 하는 걸 보면 자식을 위하는 거는 아마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을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리가 없는 사람, 몸사가 된 사람, 눈이 부실한 사람, 팔이 없는 사람, 또는 병고로 반생을 앓는 사람.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수의 들뢰

형상을 떠나 마음에 개금불사를 하라

고려 말의 호국충신 최영 장군이 평생 좌우명으로 간직했던 말은 '황금 보기를 둘 같이 하라'였다. 황금을 탐욕의 상징으로 보고 늘 무욕(無慾)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다.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으니 그 또한 독실한 불자였을 것이고 불자인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을 것이다.

양(梁)나라의 무제(武帝)는 달마대사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힘써온 거국적 규모의 불사를 자랑하면서 그 공덕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없다.'고 대답한다. 왜인가?

달마대사의 일갈 속에 무주상(無住相)의 법문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양무제! 그대가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에서 불사를 했으니 아무리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법당을 장엄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상을 키운 것일 뿐 부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마음 닦기엔 단 한 치의 진보도 없노라. 그러니 공덕은 무슨 공덕이냐?'

어느 때 인도의 아사세 왕이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올린 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로 돌아 가시는 길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등불을 켜 놓았다. 그것을 본 난타라는 노파도 감격한 나머지 구걸한 돈으로 기름을 사서 등 하나를 밝혀 놓았다. 새벽이 되자 아사세 왕의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 꺼져 갔으나 난타의 등은 여전히 밝았다.

날이 밝아오매 목련존자가 이를 끄려 했지만 오히려 더욱 밝아졌는데 그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위신력으로는 풀 수 없다.' 하시며 이 노파는 30갑 후에 부처가 되리라 수기하셨다.

그 유명한 빈자일등(貧者一燈) 이야기이다. 왕은 돈이 많아 수많은 등 공양을 했지만 거지 노파는 부처님을 뵈고 감격하여 마음의 등을 밝히기에 공덕이 왕보다 수승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복을 짓는다.' '공덕을 쌓는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보시 많이 하고, 공양 자주 올려야 복덕이 높고 쌓인다고 믿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복덕은 어디에 쌓이는가? 서방정토일까, 극락세계일까? 또 그 복덕은 언제 되찾을 수 있는가? 내세일까, 현세일까? 또 그 복덕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일까? 극락 세계를 가는 승차요금으로 쓰일까, 아니면 은행 예금처럼 찾고 싶을 때 찾아 쓰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숲에 머무시며 탁발과 분소의만으로 지내셨다. 걸 모습으로 말하면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신 부처님께서 과연 황금을 좋아하셨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불사(佛事)로 장엄케 하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다. 심지어 '나를 의지처로 삼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하셨다. 다름 아닌 '네 마음에 집중하여 거저서 진리를 깨달아라.'하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아니고 형상이라면 만불·만

등 불사인들 공덕이 있을 것이며 황금 불사인들 공덕이 되겠는가?

부처님의 거룩함에 감동했다면 그 분이 직접 보여 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을 따른 때 대 조사들이 조개 같이 몸을 던져 공부하신 게 승고해 보이고 존경스럽다면 그분들이 하신 대로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참 불자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도 역대 조사님도 마음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개금불사(開金佛事)를 하라고 하셨지 아상을 자극하는 형상을 권하는 말씀은 한 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

경전마다에는 '사구계' 하나만이라도 수지한다면 그 공덕은 절보를 수미산만큼 공양하는 것보다 크다.'고 쓰여 있다.

협찬: 주인공